



건설협회 도회 최고경영자 해외연수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오인철)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회원사 대표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최고경영자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와 강원일보사가 주최하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후원하는 '강원에코홈페어 2019 건설·건축박람회'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춘천 볼내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건설자재 생산업체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 도내 지자체 등이 참여해 총 100여개 부스를 운영했고 단 사흘 동안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이 1만5,000여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주목할 점은 공공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건설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자금의 선순환으로 경제 활성화까지 이루는 일석이조 효과를

창출했다. 이 밖에도 홈인테리어, 기자재 및 가구, 전원주택 관련 정보를 선보여 일반 시민들이 내 집을 직접 꾸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건설 정보를 쉽게 접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강원도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했다. 특히 개막 10주년을 맞아 공공분야관의 내실 있는 운영에 힘을 쏟았다. 이로써 공공분야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노후 인프라 SOC 개선사업에 초점을 맞췄고, 강원도 경제 발전의 기반인 관광정보까지 함께 선보이는 알찬 행

## 강원포럼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



사 구성으로 강원도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강원 에코홈페어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강원도 건설업체의 최우선 과제는 '일거리 확보'다. 공공 SOC 예산 축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투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시대적 문제가 반영된 결과다. 유례없는

## '연결의 장' 강원 에코박람회

'일감 보릿고개'가 도래한 시점에서 강원 에코홈페어는 건설기업들의 '오아시스'와 같은 희망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역점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건설투자 예산을 2019년 대비 2조5,000억원 증액한 22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2021~2023년 SOC 예산을 23조원 이상 편성토록 중기 재정운용계획도 수정했다. 이는 고용시장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결국 SOC투자를 통한 고용 촉진 성과를 기대하는 정부의 의도를 방증하는 것이다. 즉, 건설투자

가 경제 활성화의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건설산업이 경제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이에 그동안 강원도 건설업체들이 홍보부

족 등의 이유로 경쟁력 있는 자재를 알지 못해 일부 외지 생산자재를 사용해 온 사례에 비춰 볼 때 이번 박람회가 건설업계와 도내 건설자재 생산업체 가교의 역할을 충분히 했기에 강원건설단체연합회와 강원일보는 큰 일을 했다고 자축하겠다.

다시 한번 강원 에코홈페어 박람회의 성료를 축하한다. 더불어 이를 계

기로 건설업계는 더욱 발전하고 강원도 건설자재 생산업체는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영업활동 강화와 품질 향상 등에 힘을 쏟아 향후 세계시장 도전과 남북경협사업에 도내 생산 건설자재가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또 건설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건설을 통한 복지 실현과 새로운 인프라를 통한 관광 활성화, 기업 유치 등 미래 지향적 인식 전환이 이뤄지길 무엇보다 소망한다.

결과적으로는 건설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모든 것이 강원 에코홈페어의 취지와 성과, 그리고 희망과 함께하길 기원한다.

## 공공기관 시설공사 급감, 강원 건설 장기불황 직격탄

올해 시설공사 입찰 4956억원  
최근 3년간 4814억원 지속 급감  
기관 의존도 높아 업계 일감 부족

기관사업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내 건설사들의 공공기관 시설공사 입찰액이 최근 3년간 급격히 감소, 지역 건설업계가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조달청에 등록된 도내 누적 시설공사 입찰 금액은 4956억원으로 전국 규모(11조 4309억원)의 4.3%에 불과했다. 도내 공공기관 시설공사 입찰 금액은 2017년 같은 기간 전체 규모의 7.6%인 9770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규모의 6.8%인 6839억원으로 2931억원 줄어 들었고, 올해도 1883억원 급감한 상황이다. 지역 건설사들의 공공기관 시설

공사 입찰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일감 부족에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11월 도내 지역제한 입찰 금액은 1252억원, 지역의무 입찰 금액은 3522억원으로 총 4775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 전체 시설공사 입찰 금액의 대부분(96.3%)을 차지한다. 앞서 강원지역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은 2017년 같은 기간 46.0%, 2018년 같은 기간 43.5%에 불과해 올해와 크게 대비된다.

건설업계는 조달청에 위탁되는 공사 입찰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들에게 유

리한 토목 공사들인 만큼 도내 건설사들이 맡을 수 있는 대형공사 일감에 대한 확보 방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1~11월 강원지역 시설공사 입찰 건수는 237건으로 전체 건수(2779건) 대비 8.5%에 달해 금액 비율(4.3%)보다 두배가량 높아 건수 대비 대형공사보다 소규모 공사 입찰이 많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레미콘·아스콘 공조달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계약제도를 실행하는 등 개별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석

## 건협 강원도회, 회원사 66명 참가 최고경영자 해외연수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2019년 최고경영자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시작된 해외연수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회원사 66명이 참가해 25일까지 실시된다.